

## 송성수 교수의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 †

김종영\*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이하 『만날 때』로 지칭)는 송성수 교수의 지적 재능과 탁월함을 느낄 수 있는 저작이다. 과학기술학을 국내에 전파했던 선구자 중 한 사람인 송교수는 저서 『만날 때』에서 여러 문화와 국가들의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 세계의 과학기술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과학사, 과학사회학, 과학정책, 과학인류학의 영역들을 종합하여 과학기술문화를 분석했다. 이 영역들이 간학문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과학기술학의 하부분과로서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자의 종합능력은 한국 과학기술학계의 여러 학자들 중에서도 탁월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자의 열린 학문하기가 가져온 결과물이 바로 이 종합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과학기술문화의 특징을 각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방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기반 없이는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서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과학기술문화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점에서 파악했다. 대중의 과학 이해의 부분에서 과학기술문화는 시민의 입장에서, 국가별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의 이해는 정부, 미디어, 산업체의 입장에서 접근하여 분석하였다. 이처

† 송성수 (2009),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 과학기술문화론 탐구』, 한울아카데미.

\* 경희대학교  
전자우편: jykim24@khu.ac.kr

럼 과학기술문화를 다양한 행위자들의 관계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의 다양한 형성방식을 잘 드러내었다.

총 4부로 구성된 『만날 때』의 각 부별 중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부에서는 과학기술문화의 개념과 이론에 대해 분석한다. 문화라는 개념이 사회과학에서 가장 규정하기 힘든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이를 분석적이며 체계적으로 잘 정의하였다. 과학기술문화는 기술적(descriptive)인 측면과 평가적인 측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과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활의 양식으로, 후자는 과학의 객관성과 합리성,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행”(p. 22)으로 정의될 수 있다. 과학기술문화의 기술적인 측면은 구체적으로 과학기술문화에 대한 여러 프로그램의 기능 및 역할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생활의 양식이 시민사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정부와 산업(시장)과의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만 파악되어야 함을 저자는 강조한다. 여기서 송교수는 “과학기술문화”가 기반하는 시민사회(또는 민간분야)와 이를 “시스템”적으로 프로그램화하는 공공분야(정부, 공공기관) 모두를 포괄하는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둘의 상호작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것으로, 1부의 개념 정의의 논리적 전개는 2부의 인프라(물질적, 제도적 인프라)와 조직양식에 기반한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의 국가별 차이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2부에서는 영국,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네덜란드의 과학기술문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여준다. 각국의 과학기술문화 시스템 형성 과정과 특징을 과학사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의 정부, 미디어, 산업체, 시민사회의 영역에서 과학기술문화를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이 제시된다. 여기서 독자들은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방식과 조직방식을 알 수 있다. 각 국가들마다의 전통과 전략, 주요 행위자들간의 관계를 역동적으로 기술함으로써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의 다양한 구성을 생동감 있게 보여주었다.

3부에서는 한국의 과학기술문화 활동이 자세히 소개되어지는데 1970년대부

터 시작하여 현재까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위자들의 역할을 조명한다. 한국의 과학기술문화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에서 주도했던 전 국민의 과학화 운동이 보여주듯이 관 주도적이고 하향식이며 계몽주의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과학기술문화 활동이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지만, 이러한 국가주도적인 성격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다. 이는 과학기술이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중요한 국가적 프로젝트들 중 하나인 동시에 한국 근대화의 프로젝트의 중심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성격과 더불어 3부에서는 과학기술문화 하부구조에 대한 통계분석과 한국 과학관의 지형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3부의 전반부가 과학관,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식의 분석이었다면, 후반부에서는 과학기술과 시민이 만나는 주요한 장소인 과학관이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저자는 한국의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취약하며 개선될 점이 많음을 강조한다.

4부에서는 과학기술문화가 보다 더 발전하고 풍부하게 되기 위해서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연계를 주장한다. 서로 다른 학문 간의 교류를 위한 실험 정신이 필요한 동시에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여,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간의 쌍방향적 교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여기서 저자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인문사회과학자와 과학기술자들을 폭넓게 활용할 것 (2) 과학기술문화 사업에서 이 두 영역의 교류를 강화할 것 (3) 대학교육에서 두 영역의 연계를 강화시킬 목적을 위한 강의와 전담인력을 만들 것 (4) 학제연구센터는 설립하여 과학기술과 인문사회를 연계하는 연구 활동을 본격화 할 것. 4부에서 드러나듯이 송교수는 과학기술문화라는 분석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라는 규범적이고 실천적인 문제의식을 두루 가지고 있다. 『만날 때』는 이처럼 학문과 실행, 민간부분과 공공부분,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의 이분법을 가로질러 새로운 과학기술문화의 형성을 설파하는 역작이다.

『과학기술과 문화가 만날 때』에 대한 평자의 비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저자는 민간부분과 공공부분에서의 과학기술문화에 대해 잘 설명했지만 내러티브는 여전히 국가 중심적이다. 이 책에서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을 이해하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국가주도형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간헐적으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미디어와 과학관의 역할이 묘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발적인 시민의 과학문화 활동이나 과학기술계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과학기술문화는 대단히 협소하게 묘사된다. 독자들은 과학기술과 문화에 대해 일련의 작업을 해 온 홍성욱 교수의 책들과 이 책을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이 책이 국가 중심적 내러티브를 구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가 중심적 내러티브는 과학기술문화가 가지는 글로벌한 속성을 간과하기가 쉽다. 각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의 좋은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서로 차용하고 도입하기도 하는데, 이 책에서는 마치 각 국가들이 독립적인 과학기술문화를 구축해 온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둘째, 이 책의 중심주제들이 마치 주어진 것들처럼 밋밋하게 분석되고 있다. 즉 과학기술학이 기본적으로 구성주의적 관점을 취한다고 보았을 때 각 국가들의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어졌는지에 대한 분석이 없다.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건들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존재했고, 이것들이 각 국가의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처럼 서술하였을 뿐,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존재하는 주요행위자들의 갈등, 타협, 전략에 대한 분석이 전무하다. 각 국가단위로 단지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나열하고 기술했을 때 독자는 흥미를 잃기 쉽다. 셋째, 이 책은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빼놓고는 이론적, 경험적인 참신함과 독창성이 떨어진다. 저자의 종합·분석 능력은 탁월하다. 하지만 자신의 주요한 논변이 무엇이며 이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자신의 논지를 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해 줄 이론적 분석과 경험적 데이터가 부족하다. 이에 독자들이 잘 요약·정리된 책을 넘어 무엇을 새롭게 배울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는 독자들에게 각 국가들의 과학기술문화 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과학기술문화의 편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수작이라고 생각한다. 송성수 교

수의 탁월한 종합능력과 흡수력이 가까운 장래에 또 어떤 작품을 탄생시킬지 기대된다.